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청지기훈련 실시

4월 2일부터 8주간 충현기도원서

교회는 청지기훈련을 오는 4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8주 동안 충현기도원(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소재)에서 갖기로 했다.

92년도 교회 목표에 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제 아래 실시되는 이번 청지기훈련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1박 2일간 단체적으로 실시된다.

특별히 금년 교육은 각 교구별로 등록하여 실시되며, 직분에 상관없이 충현교회 성도면 누구나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다.

청지기훈련을 원만하고 효율

적으로 진행키 위하여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원장으로 하고, 오정현 장로를 원감으로, 이조웅 목사를 지도로, 김재명 장로를 교학담당으로 조직했으며, 봉사요원 및 프로그램은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로대학

19일 임시소집

살롱경로대학은 92년도 제1학기 개강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소집을 오는 3월 19일(목) 오전 11시 갈릴리움에서 갖는다.

주변에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권면하여 경로대학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충현전도대원 훈련

3월 11일 저녁 8시 30분에 개강
충현 성도는 적극 참여해야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충현전도대 훈련 개강에 배를 오는 3월 11일(수) 저녁 8시 30분 배다니홀에서 개강한다.

개강 후 10주 동안, 영혼 구원과 새로운 구역 개척으로 교회배가 성장을 목적으로, 전도의 동기 부여, 찬송 및 기도 훈련, 현장 전도 방법, 구역 신설 방법 등에 관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사무국(교102호)에서 집수를 받고 있으며 등록비는

만원이다.

교인 배가를 교회 목표로 삼고 전도에 초점을 맞춰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 받은 자로서 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준비하고 훈련에 참가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프리즘

◎...3월에는 선거일이 하루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들의 민의를 대표할 선량,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 24일로 확정되었다.

벌써부터 선거 열풍이 불어 유권자는 가만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와 운동원들이 앞을 다투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국내 모든 매스 미디어는 불법이니, 타락이나, 돈싸

움이니 등의 굵직한 직한 타이틀로 신문 1면 머릿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미칠 것 같은 선거 후유증이 없으리란 법도 없을 만큼 요란을 떨고 있다. 거기다가 선거철 새들의 한탕주의가 판을 친다는 소문도 있다.

밀는 자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독교인들은 흥분과 절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용히 자제

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 배출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가 민주화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교회당 주변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이미 본란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역설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 일에 협력하지 않는 부처들이 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모든 직분자, 그리고 교육부서, 찬양대, 전도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교회당 주변 청결에 앞장서고 자기가 버린 휴지와 쓰레기는 자기들이 줌과 깨끗이 치우는 성도들의 질서 의식이 꼭 필요하다.

청소는 미화부 직원의 일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목회자세미나 개강

3월 9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원장 신성종 목사)에서 주관하는 전국 목회자세미나의 제4학기 강의가 내일(9일) 오후 1시 본당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김창인 원로목사
흑산도에서
부흥회 인도

김창인 원로목사는 3월 4일부터 흑산도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중에 계시다.

민족 복음화의 일환으로 승천교회(김종길 목사 시무)에서 열리고 있는 이 부흥회에서 김 원로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흑산도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김 원로목사는 11일(수) 귀경 예정이다.

70인전도대 수료자

전원 소집

전도위원회는 70인전도대에서 훈련받은 수료자들을 재교육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1일(수) 저녁 8시 30분 배다니홀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해당되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성종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
강사로 청빙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성 박사)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의 강사로 청빙을 받았다.

오는 3월 12일(목) 저녁 6시 30분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리는 이 강연회는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신학 자상에 관한 것으로, 신 목사는 "성서적 견지에서 본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

카메라 쏠림



▲ 3월 1일에 있었던 남녀전도회 헌신예배.



▲ 성경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개강하였다.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성령께 합당한 생활 2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엡4:25~32)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엡4:25)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가까이 해서는 안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4:26)

분노에는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와 좋은 의미로 쓰이는 의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살해한 것은 의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는 것이 의분에 의한 것이든 혈기에 의한 것이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의분이 필요하지만 그 의분이 지나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분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의분이든 혈기든간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이 생겼을 때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엡4:28)

사람들은 흔히 도적질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큼의 일을 하고서 둘만큼의 댓가를 기대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도적질을 멀리 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엡4:29)

더러운 말, 즉 욕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옵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욕을 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음담패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니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4:31)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일과 악의를 모두 내어버려야 합니다.

2. 해야 될 것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4:25)

첫째, 성도들은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이 옛사람의 상표라면, 진실은 새 사람의 상표입니다. 살아가다보면 때때로 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흰 거짓말을 하다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4:28)

둘째, 성도들은 구제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나

넷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한 것이라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엡4:32)

다섯째, 성도들은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황금률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마7:12)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대할 때 인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구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성도들은 도적질하는 데서 돌이켜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제헌금을 하거나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셋째,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일에만 너무 열중하면 안됩니다.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마치 장래를 경계하듯 살아갑니다. 운동선수는 앞에 놓인 장애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뛰어 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죄를 피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자주 하다보면 이런 부정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자주 노력하다보면 악한 일이나 더러운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4:32)

여섯째, 성도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마18:21, 22).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주어야 할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랍비들이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 용서하는 사람을 성자요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까지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칭찬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없이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성령에 관한 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4:30)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탄야 손대지 말아라. 이들은 다 내 자녀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죄로 성령 훼방죄, 성령소멸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 32)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병이리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쳤다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마귀의 장난’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성령훼방죄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법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살전5:19)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성령 소멸”이란 “성령의 역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같이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을 멀리 합니다. 기도를 멀리 합니다. 찬송을 멀리 합니다. 둘째,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때 거기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성령소멸죄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성령훼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지만 성령소멸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도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우리들이 새 사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을 반복할 때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악의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과 악독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예배모범

(1) 목회자의 강력한 영력과 지도력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되어 있었음.

(2) 일정한 형식 없이 찬양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예배였음에도 그 속에 경건이 있었고 매우 뜨거움을 체험.

(가) 사회자 없이 시작과 끝을 자유로운 대화식으로 진행.

(나) 경건 찬송과 복음송 및 현대 음악(락뮤직은 없었음)이 조화를 이루는 음악 예배 같은 분위기.

(다) 주보는 예배 순서 위주가 아니라, 각종 집회, 성경공부, 친교 등 광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음.

(라) 축도는 없는 곳도 있으며, 있어도 극히 간단했음.

(3) 찬양대는 가까운 입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현금요원 및 안내요원은 붉은색 또는 노랑색 상의를 입는 곳이 있었음.

(4) 성찬 예배시, 떡과 포도즙은 배찬 후 일제히 들고, 잔은 플라스틱잔으로, 마신 뒤 좌석 앞함에 놓아두고, 예배 뒤에 회수하는 식으로 질서를 유지.

(5) 침례교회에서는 새신자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침례를 해주 행함. 이것은 장기간의 기다림으로 인한 마음 변화를 방지하고 세례 후에 교육으로 확신을 갖게 하려는 의도임.

예배 때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쳐 헌금을 함.

(7) 예배 후에는 이곳 저곳에서 다정한 교제를 나눔.

(8) 예배 후에 이곳이 나의 집인 것 같은 편안함과 즐거움

미국 성장 교회 연구조사단 보고서

21세기를 향한 충현교회 중장기 성장 계획 일환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 4개 지역에 미국 성장 교회 연구조사단을 파견하여 예배 모범을 비롯한 교육체제와 운영, 선교 정책, 사회 봉사 활동 등을 견학하게 하였다.

연구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이 지면에 발표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충현교회 부흥 성장에 귀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편집자 주)

을 느낄 수가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근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를 대함.

(9) 교회의 스태프들은 예배 후에 처음나온 신자들을 뜨겁게 환영을 하면서 그 교회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등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함.

(10) 설교를 한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

2. 교육 체제와 운영

(1) 교회학교 부흥이 곧 교회 부흥임을 실감케 하였음.

(2) 교회학교는 주로 연령층별로 분류하여 성경공부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었음.

(3) 독신자나 신혼 가정 등 젊은층에 초점을 맞춘 교회학교 운영이 많았음.

(4) 원거리 학생을 위한 교회 학교 버스 운행, 주간 여성 성경 공부반을 위한 탁아부 운영이 효과적이었음.

(5) 교역자는 교회학교 성경 공부 지도에 중점적으로 배치되

어 있었음.

(6) 교사는 교역자가 겸임하여, 연 2회 훈련을 하고 있었음.

(7)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 실시하고 있었음.

(8) 교재는 데이비스 쿡에서 출판된 교재를 많이 쓰고 있었음. 우리 교회에도 비치 예정.

(9) 교회는 지역사회문제를 잘 이해하고 연구한 교사를 활용하고 교회 학교 역시 이러한 교사에 의한 바람직한 교육 실시.

(10) 상담이 많이 개방되어 있음.

(11) 일주일내내 교육과 활동이 교실마다 운영.

3. 국내외 선교 정책과 운영

(1) 전도라는 용어대신 구령(SOUL WINNER)이라는 용어를 강조하여, 이웃의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감을 인식시킴.

(2) 직분자는 의무적으로 주 2시간씩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도 있었음.

(3) 새신자에 대한 배려를 세

것. 많은 돈을 나라에 바치는 것,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것 같은, 눈에 띄는 애국 활동을 하는 것만을 나라 사랑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라 사랑의 최고 형식이라는 것을 암시하셨다. 사실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제일의 적으로 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나라를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보다 더 진솔하고 고상한 나라 사랑은 정치 운동보다도 그 백성의 도덕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그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도덕력은 어떤 제경에 있는가. 불신과 불의, 거짓과 음란, 안일과 퇴폐 풍조는 이 땅 위에 만연하여 이 나라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사치와 허영과 과소페로 이 나라 경제는 곤경에 빠져 있다. 방공부

심하게 하여, 스스로 교회 생활에 참여할 때까지, 집회 참석, 헌금 등을 강요하지 않음.

(4) 일단 등록한 새신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초 10일 동안에 2회 심방하고 있었음.

(5) 전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의 개발

(가) 불신자와 만나는 모임

(나) 독신자를 위한 모임 또는 상담

(다) 실내 체육 시설, 탁아소 운영, 도서관 운영

(라) 월~토까지 주간의 각종 모임을 교회내에서 실시

(6) 개척교회설립으로 지역사회 교회(Community church) 확산.

(가) 모교회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음.

(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역에 개척 교회를 설립, 분가함.

(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함.

(7)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액 지원 또는 부분 지원의 두 방법이 있으나, 주로 여러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분담 지원(통상 1인

발표에 의하면 92년 1월중 수출은 53억9천2백만달러, 수입은 73억달러로 19억8백만달러 적자로 적자 월간 실적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워 2월중에는 총외채가 4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3천여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원로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라 위한 기도를 하루도 쉬어서는 안된다. 이 나라 천2백만 성도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둘째,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리하여 이 나라 온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행동으로, 생활로 도덕적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

당 월 500불 이하)하는 협력선교가 많았음(개인들이 지원하고, 교회는 이것을 묶어서 관리함).

(8) 교회 현관 옆에 지원 선교사의 사진과 함께 성명, 임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고정시켜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호소.

4. 교회 행정 기구 및 운영

(1) 당회는 입법 및 감독기관 역할만 하는 교회가 많았음.

(2) 당회원의 시무 임기는 임기제로, 1년 안식년을 가진 후 재신임을 물어 통과되면 1차에 한해 연임하고 있었음.

(3) 당회는 교회 행정에 절대적 권한(특히, 인사 및 재정)을 갖고 있었으며, 재정에는 공인회계사가 통제역을 담당하고 있었음.

(4) 유급 행정 요원은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특히 고령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음.

(5) 성장 교회는 모두 넓은 주차 공간과 차량 유도 봉사 요원을 잘 활용하고 있었음.

(6) 교회는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에 철저히 가입하고 있었으며, 재정의 40퍼센트 정도를 점하고 있었음.

5. 사회 봉사 활동

(1) 지역사회교회에서는 특히 지역과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음.

(2) 교인들이 가정에서 남아도는 식료품이나 일용품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회에 가져고 와서 보관하였다가 구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었음.

생활이 불신자의 그것과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청기적인 것을 명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면 절약 하며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며 특히 수입품은 부득이한 것 외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도덕적 각성 운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의 모든 행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 특히 교회 제도층의 모임, 장소 등은 검소하게 일한 사회와 구별되게 하여 이를 통하여 무연 중에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갱생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각자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

92년 3월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호 칼럼은 이종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장로칼럼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김영개 장로
(재정위원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 계곡에 돌로 찌는 자여 암람이 그 세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날에 몇 번이나 그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마23:37)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와 유대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만민을 사랑하시고 인자로서는 자기 나라 유대와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

였다.

우리들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만민을 사랑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는 이 나라에 백성을 예수님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예수님의 사랑은 정의에 근거하였던 것같이 우리들의 나라 사랑도 역시 정의에 일치되어야 할 줄 안다. 따라서 애국심이란 국가, 국민의 불의와 사욕을 조장, 묵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혹자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 청년3부 겨울 수양회를 참가하고 •

각성과 다짐의 기회

원성수 성도(청년3부 회원)



충현의 청년들은 수양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

청년3부의 제23회 겨울 수양회가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땅 끝까지 품고 복음화하라”는 주제로 김해규 목사님, 정기봉 목사님, 그리고 정홍식 집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선교적 대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과 엄연한 생활 현장에서의 전도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청년3부 회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말제 토의 및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첫째날, 김해규 목사님은 “선교, 우리의 사명”이라는 강의를 통하여 역사 의식과 비전을 가질 것과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는 것이 선교 사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성령 충만만이 이를 가능케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이 90년대말 21세기

의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특히 중국 선교를 강조하였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은 복음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강인한 체력과 강력한 체력을 은사로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것임을 드러내었다.

둘째날, 정기봉 목사님은 “기독교 청년의 영적 재무장”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만이 참다운 선교임을 상기시키며,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청년의 영적 황폐 회복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였다. 무기력하여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히 닮아가는 청년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날에는 금요기도회를 본당에서 함께 드린 후, “직장 복음화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였다. 말제에 나선 회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보수 교회인 현실 담구를 강조하였다. 또한 직장이 삶의 현장일뿐만 아니라 선교의 장으로서 최전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특히 직장 안에서의 대인 관계 및 신우회의 역할도 거론되었고, 궁극적으로 모든 기독교 청년들이 자생력 있는 영적 생산력을 갖추는 것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넷째날에는 각 조별로 “공동체 한마당” 순서가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나름대로 준비한 성경극, 율동, 찬양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막내들의 인형극 “엠마오의 두 제자”는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 한마당 순서는 향후 기독교 청년들이 공동체 문화 내지 놀이 문화, 나아가서 교제 방식 등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시간이었다. 청년들의 참신성이 복음적 요소와 잘 결합되어 건전한 기독교 청년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안목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공동체 한마당”을 마치고 정홍식 집사님의 “직장 선교의 비전” 강론이 있었다. 이 시간은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에 대한 새로운 일깨움과 도전을 던진 강의였다. 한 구성원으로서 부속적 역할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족, 교회, 국가)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날은 주일집회로 이어져서 “가정 사역과 가정 복음화”란 주제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가정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복음적 가정 사역 측면에서 불신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과 이상적 가정의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뜻 가운데 선교적 사명이 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청년3부의 제23회 겨울 수양회는 청년 공동체의 향후 방향성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청년3부는 이제 급진 말까지 양적 배가의 목표를 붙잡고 배무세를 가다듬을 시점이다. 청년층이 감당할 기독교 문화 창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1교육위원회 야외 예배 및 친교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송기홍 장로)는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양재 시민공원에서 교사 야외 예배 및 친교회를 갖는다. 영아부에서부터 초등6부까지 제1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

중등3부 학부모 초청 강좌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김태준 목사)는 오는 3월 15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소석관 507호에서 학부모 초청 강좌를 개최한다.

학부모들이 사춘기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강좌는 송태근 목사와 김태준 목사를 강사로 하여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성공”, “신앙과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4교구 친교 모임

제4교구(지도 김창수 목사, 부지도 장해순 전도사, 교구장 최상규 장로)는 교구의 부흥과 교구 식구간의 친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3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만나홀

성경연구원 주간성경공부반 일정 변경

◆ 크로스웨이반

1. 남성도반
 - 시간: 매주 금요일 새벽 6시 10분
 - 장소: 만나홀
 - 내용 및 강사: 제1권(신성종 목사)
 - 대상: 남성도(100명 선착순)
 - 기타: 아침식사 제공
2. 화요반
 - 내용 및 강사: 제3권(이조웅 목사)
 -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 목요반(신설)
 - 내용 및 강사: 제1권(이조웅 목사)
 -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베다니홀

◆ 일반성경공부반

- 화요일 오전 11:20~12:30 열왕기(하) (김찬곤 목사)
- 저녁 7:00~8:10 요한복음(김창수 목사)
- 8:20~9:30 사무엘(하) (김성운 목사)
- 수요일 오후 1:30~2:40 창세기 (송태근 목사)
- 1:30~2:40 갈라디아서(일어반) (심길용 목사)
- 목요일 오전 10:00~11:10 히브리서(김양홍 목사)
- 11:20~12:30 디모데전서(최인근 목사)
- 저녁 7:00~8:10 마태복음(김학진 목사)
- 8:20~9:30 골로새서(이홍성 목사)

제12교구 남녀전도회 부부 모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12교구협의회(지도 윤용규 목사, 부지도 최명자 전도사, 교구장 김경철 장로)는 교회 부흥을 위한 새가족 찾기와 성도 상호간의 친교를 위하여 제12교구 소속 7개 남녀전도회 연합 부부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월례회를 겸한 이 모임에 모든 전도회원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3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메추라기홀

9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명단

◆ 소석장학생

엄현일, 오정성, 홍경호, 이영미, 김경희, 김정임, 조성희, 지의미, 장명순, 이미리, 정재용, 김상호, 백원욱, 박희성, 박태진

◆ 충현장학생

정관호, 박송이, 김민호, 김은숙, 조현숙, 이하늘, 박지혜, 조혜진, 이지수, 이기엽, 이길찬, 안병철, 최혜리, 이오복, 임성이, 정상미, 엄혜선, 이요한, 김범진, 박동석,

박선정, 윤유선, 은동한, 왕승원, 박선정, 임필아, 김수희, 구혜경, 조충현, 박영제, 최철훈, 김은주, 안의정

◆ 위탁장학생

장수진, 최 진, 남은우

◆ 신학원장학생

김춘택, 한재용, 안경애, 한광숙, 유재덕, 김필수, 정갑신, 이준우, 김복남, 신진철

직능전도부원모집

전도위원회는 직능별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 직종에 종사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금융, 경찰, 체육, 예능, 매스컴에 종사하는 성도
- 일시: 3월 8일(주일) 낮 12시 30분
- 장소: 선교관 405호

직원모집

교회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전문간사(유급 상근 직원)를 모집합니다.

자 격: 1. 세계 선교에 헌신할 분

2. 외국어(영어)에 능숙한 분

3. W/P 등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분

4.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분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충현교회 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교적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기소개문 각 1통씩

제출기한: 1992년 3월 21일까지(접수 후 개별 통지)

제 출 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우)135-080

충현교회 사무국 또는 세계선교위원회
(반드시 우편 제출 요망)